

축소모형을 이용한 평형별 가구선택과 배치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urniture Choice and Arrangement
Using Scale Down Models according to the Size of Space

임 소 연*1)
Lim So Yeon
안 옥 희**
An Ok Hee

Abstract

The Plan for effective usage of living room must be suggested because families primarily use living room for public space. And from the viewpoint of function and decoration, the kind of furniture, furniture occupancy quantity, and the arrangement of furniture have much affect on using a dwelling space. So this study will suggest basic data for a good furniture usage through experiment using scale down models.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by running SPSS PC⁺ program.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In an experiment using living room and furniture models(Scale 1/20), according to the size of space, TV sizes and furniture occupancy quantity were in proportion to size and space of the living room. Also they chose various types of tea-table and side-tables. In small spaces, subjects chose simple arrangement types (no sofa or I type sofa and cabinet), but in large spaces, they chose Ltype or □type sofa and cabinet.

* 정회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연구조교

**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I. 서론

오늘날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생활시간 사용의 변화로 주공간의 많은 기능을 사회가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옛부터 계속되어 온 가족의 식생활 관리나 가족의 건강을 도모하는 기능 등은 가정밖의 사회 여러 시설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족의 단란과 화목을 위한 장소인 거실의 기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과 같은 가족위기와 해체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단란을 위한 공적 공간인 거실은 주공간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거실이 가족 전체를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용안이 뒤따라야 한다. 거실공간을 거주자가 사용함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장비로서 가구를 들 수 있는데, 가구는 기능면에서나 장식적인 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가구의 종류 및 양, 가구의 배치 상태 등은 주공간의 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택내에서의 가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소유가구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가용면적에 제한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주공간 사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로 가구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가구의 소유 정도와 점유량, 배치유형 등의 물리적 측면의 실태파악에 한정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규모에 국한시켜 시행되었다(표 1). 즉 이들 연구들은 주공간의 특성과 가구사용의 주체인 사용자의 요구

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가구사용에 대한 의식과 실태파악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에 거실공간과 가구를 조합한 연구가 이루어져 거실공간과 가구사용의 관련성 및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²⁾가 행해졌으나, 이 역시 실태를 중심으로 거주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나 의식조사의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유용하나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성이 부여된 결과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축소 모형의 공간과 가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각 평형별로 크기가 다른 거실공간에 있어서 가구 선택유형과 배치유형 및 가구의 점유율을 파악하여 각 평형별 양상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행해진 실태조사 결과와의 고찰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거실가구 사용의 기초 자료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가구의 양과 배치라는 물리적 상황을 변인으로 보고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된 각 평형별 거실가구 선택유형과 배치 등을 파악하여 거실가구 사용의 기초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환경심리학의 방법에서 실험조건의 측정결과를 객관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타당성이 높은 모형 실험³⁾을 실시한다.

〈표 1〉 국내의 거실공간과 가구에 관한 연구 사례

내용분류 \ 년도	1970-1974년	1975-1979년	1980-1984년	1985-1989년	1990년이후
가구의 내용분석	이태길(1974)	최목하(1979)	이진영(1980) 유진영(1981)	장해주(1985) 김승희(1989) 송호정(1989)	신영식(1990) 권승애(1991) 공혜원(1992) 서상재(1992) 한길영(1993) 김경수(1993)
가구디자인	김운환(1974)	백봉옥(1978)	임단상(1980) 윤영태(1982) 한정규(1983)	임창빈(1988) 허 선(1986) 김승희(1989) 송민아(1989) 이강민(1989)	권오진(1990) 조명숙(1990) 최순희(1990) 서동석(1991) 김정호(1991) 심재희(1992) 피용찬(1992) 한철수(1993)
가구의 배치			이강희(1980) 남경숙(1982) 강성미(1983)	김유인(1986) 선병룡(1988) 이선미(1988)	
가구의 사용		안호협(1978)	김성희(1980) 심정보(1983)	강무진(1986) 이선수(1986) 이명자(1989)	
주공간 사용		이기남(1976)		함상우(1986) 이홍재(1987) 조성희(1988) 공성근(1989)	김현수(1990) 김미희(1991)
거실공간의 계획 및 구성		최선희(1975) 송원희(1977) 배준식(1978)	공미혜(1980)	배정도(1989)	허 재(1993)
거실공간의 활용		제선자(1979)	권춘안(1982) 김 결(1982)	유우상(1987) 정연머(1987) 배은희(1988)	
거실공간 평가					조원덕(1990) 이명옥(1991)

※ 이 자료는 건축관계 문헌자료 목록집¹⁾과 국립도서관 소장논문색인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1. 모형의 제작

거실은 1990-1993년에 걸쳐 분양된 대구시 내 아파트의 평면도를 분석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10평형대,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로 분류한다. 10평형 이하의 경우는 거실과 방을 겸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60평형대 이상은 거실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있어 공간규모에 따른 가구배치 제한성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20평형에 있어서는 2LDK형의 경우, 30평형 보다 거실의 면적

이 넓어 주거면적 대 거실면적의 비율이 비례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3LDK형으로 제한한다. 각 평형의 거실 규모는 〈표 2〉와 같다.

〈표 2〉 전용면적별 거실 규모

(단위 : mm)

전용 면적	거실 규모
10평형대	3,600 x 3,300 x 2,300
20평형대	4,500 x 3,600 x 2,300
30평형대	4,800 x 3,600 x 2,300
40평형대	5,100 x 3,600 x 2,300
50평형대	5,100 x 3,900 x 2,300

앞에서 결정된 5개의 거실을 1/20 축척으로 제작하고 이때 모든 평형의 거실공간에서 고정적 요소인 바닥, 벽, 천장의 색 및 재질은 일치시키며, 유동적 요소로 사람과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장식물 등은 제외시켜 반고정적 요소인 가구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구는 인간공학적 분류⁴⁾에 따라 인체계 가구, 준인체계 가구, 건축계 가구, 에너지계 가구, 스페이스계 가구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대상공간이 거실이므로 스페이스계 가구는 제외한다. 실험 대상인 가구의 모형은 <표 3>과 같이 1/20의 축척으로 제작하였다.

<표 3> 가구의 종류별 치수

단위 (mm)

가구의 종류	치 수(W x D x H)	기호	
건축계 가구	장식장	1,200 x 400 x 2,000	A형
		900 x 400 x 2,000 *	B형
		800 x 400 x 2,000	C형
		850 x 400 x 2,000 *	D형
		750 x 500 x 1,200 *	E형
		1,650 x 510 x 800 *	F형
		1,500 x 500 x 600	G형
		1,200 x 400 x 450 *	H형
인체계 가구	소파	2,000 x 900 x 800	L형
		1,500 x 900 x 800 *	M형
		900 x 900 x 800 *	S형
준인체계 가구	탁자	800 x 800 x 350	A형
		1,200 x 620 x 450	B형
		1,240 x 730 x 450	C형
에너지계 가구	T.V	1,100 x 750 x 630	35인치
		850 x 700 x 550	29인치
에너지계 가구	오디오	780 x 630 x 500	25인치
		680 x 540 x 480	20인치
		580 x 460 x 460	15인치
		1,200 x 450 x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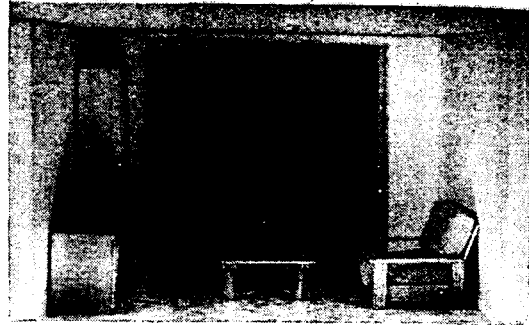
*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2개 제시함

또한, 피험자가 실험을 하는데 있어 1/20으로 축소된 거실공간과 가구의 크기에 대한 스케일(SCALE) 개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고 보다 현실감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인체의 모형(신장 160cm의 성인 여자, 1/20 축척)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은 5개 평형의 각 모형에 동일한 크기의 모눈종이를 바닥에 깔아 둔 후 피험자로 하여금 제공된 모형가구 중 각 평형에 가장 적당한 가구를 선택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이때 실험자가 선택한 가구를 모눈종이에 기록해 둔다. 실험은 피험자 1인당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사진 1)



(사진 1 : 10평형의 가구배치의 예)

III.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40대, 50대 주부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기간은 1995년 1월 - 3월이며 결과의 분석은 각 평형별로 가구의 바닥·벽면·공간 점유율을 파악하고, 가구의 종류, 배치유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등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V. 실험 결과

1.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4>과 같다.

〈표 4〉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본인 연령	40세 이하	3(5.9)	남편 연령	40세 이하	2(4.1)	
	41 - 50세	33(64.6)		41 - 50세	27(55.1)	
	51세이상	15(29.5)		51세이상	20(40.8)	
	계	51(100.0)		계	49(100.0)	
본인 학력	중졸이하	9(17.6)	남편 학력	중졸 이하	7(14.3)	
	고졸	29(56.9)		고졸	16(32.7)	
	대졸이상	13(25.5)		대졸 이상	26(53.0)	
	계	51(100.0)		계	49(100.0)	
본인 직업	무 유	32(62.7) 19(37.3)	남 편 직 업	생산노무직	6(12.2)	
				판매서비스직	15(30.6)	
				사무직	10(20.4)	
	계	51(100.0)		계	49(100.0)	
방의 갯수	2개 이하	8(15.7)	자 녀 수	1명 이하	9(17.6)	
	3개	20(39.2)		2명	24(47.1)	
	4개 이상	23(45.1)		3명	16(31.4)	
	계	51(100.0)		4명 이상	2(4.0)	
집 전체 평수	27평이하	16(31.4)	가 족 수	3명 이하	8(15.7)	
	28평-38평	10(19.6)		4명	25(49.0)	
	39평-48평	6(11.8)		5명	15(29.4)	
	49평-59평	17(32.2)		6명 이상	3(5.9)	
	60평이상	2(4.0)		계	51(100.0)	
주택 유형	독립주택	26(51.0)	월 평 간 수 입	100만원미만	7(13.7)	
	아파트	25(49.0)		110-200만원미만	16(31.4)	
		계		51(100.0)	200-300만원미만	18(35.3)
주택 소유 상태	자가 타가	40(78.4) 11(21.6)		300만원이상	10(19.6)	
		계	51(100.0)		계	51(100.0)

* 변인에 따라 빈도 합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한 것임

〈표 5〉 소파의 선택유형

구 분	N(%)														
	없음	S	S + S	M	M + S	M + S + S	M + M	M + M + S	M + M + S + S	L	L + S	L + S + S	L + M	L + M + S	L + M + S + S
10 평	26 (51.0)	2 (3.9)		6 (11.8)	5 (9.8)					11 (21.6)	1 (2.0)				
20 평	4 (7.8)	1 (2.0)		7 (13.7)	12 (23.5)		4 (7.8)			12 (23.5)	7 (13.7)	1 (2.0)	3 (5.9)		
30 평	1 (2.0)		2 (3.9)	2 (3.9)	7 (13.7)	1 (3.9)	5 (9.8)			11 (21.6)	13 (25.5)	1 (2.0)	8 (15.7)		
40 평				1 (2.0)	1 (2.0)		5 (9.8)	2 (3.9)		11 (21.6)	14 (27.5)	4 (7.8)	9 (17.6)	4 (7.8)	
50 평			1 (2.0)	1 (2.0)	4 (7.8)		1 (2.0)	4 (7.8)	1 (2.0)	3 (5.9)	4 (7.8)	11 (21.6)	12 (23.5)	7 (13.7)	2 (3.9)

* S = 1인용 소파

M = 2인용 소파

L = 3인용 소파

* 1위

* 빈칸은 사례수가 없는 경우임

2. 각 평형별 가구의 선택유형

1) 소파의 선택유형

실험을 통해 피험자가 택한 소파의 유형은 모두 16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각 평형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5〉.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0평형의 경우에는 소파가 없는 경우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20평형의 경우에는 M(2인용)+S(1인용)형과 L(3인용)형이 23.5%로 가장 많았다. 30평형의 경우에는 L+S형이 25.5%, 40평형에 있어서도 L+S형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50평형에 있어서는 L+M형이 23.5%로 많았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평형이 커질수록 L형 이상의 형 즉 L+S형, L+S+S형, L+M형, L+M+S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평형별로 소파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유율을 살펴보면 10평형의 경우는 49%, 나머지 평형의 경우는 100% 소파를 배치하였다. 이 결과는 실태조사 연구인 조성희⁵⁾, 김오성⁶⁾ 선행연구⁷⁾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10평형이하의 경우에는 소파 선택비율이 더 낮았고, 나머지 평형에는 대부분 일치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식장의 선택을

각 평형별 장식장의 선택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장식장의 선택을

평형	구분		N(%)	
	선택함	선택하지 않음		
10평형	48(94.1)	3(5.9)		
20평형	49(96.1)	2(3.9)		
30평형	51(100.0)	0(0.0)		
40평형	51(100.0)	0(0.0)		
50평형	51(100.0)	0(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평형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장식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실태조사를 한 선행연구의 결과인 79.0%의 보유율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3) 테이블 선택유형

각 평형별 테이블 선택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테이블 선택유형

평형	구분	선택하지 않음	선택함			N(%)
			A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10평형	33 (64.7)		9(17.6)	9(17.6)	0(0.0)	18(35.2)
20평형	21 (41.2)		7(13.7)	11(21.6)	12(23.5)	30(58.8)
30평형	9(17.6)		2(3.9)	18(33.3)	22(43.1)	42(82.4)
40평형	7(13.7)		2(3.9)	19(37.3)	23(45.1)	44(86.3)
50평형	3(5.9)		3(5.9)	19(37.3)	26(51.0)	48(94.1)

* A형: 좌탁 B형: 타원형 테이블 C형: 직사각형 테이블
 *  1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평형에 있어서는 테이블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평형이 커질수록 테이블의 선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평형에 관계없이 3가지의 테이블 종류 가운데 C형의 테이블, 즉 직사각형 테이블의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테이블의 사용에 대한 선행의 실태조사 결과⁶⁾(10평형:31%, 20평형:61.5%, 30평형: 78.0%)와 거의 유사하였으나 10평형의 경우는 또다른 선행연구의 결과(52%)⁷⁾보다 낮게 나타났다.

4) 사이드 테이블의 선택을

각 평형별로 사이드 테이블의 선택율을 살펴본 결과<표 8>, 각 평형에 관계없이 사이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평형이 커질수록 그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10평형과 20평형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10평형: 28.5%, 20평형: 21.5%)⁸⁾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테이블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8> 사이드 테이블 선택유형

평형	구분		N(%)	
	선택함	선택하지 않음		
10평형	2(3.9)	49(96.1)		
20평형	5(9.8)	46(90.2)		
30평형	4(7.8)	47(92.2)		
40평형	9(17.6)	42(82.4)		
50평형	10(19.6)	41(80.4)		

5) TV 선택유형

각 평형별로 TV 선택유형을 알아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평형의 경우에는 20인치와 25인치의 사용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20평형의 경우에는 25인치 사용이 45.1%로 가장 많았고, 30평형에서는 29인치의 사용이 33.3%, 40평형에 있어서는 35인치의 사용이 49.9%로 높게 나타났으며 50평형에 있어서는 35인치의 사용이 80.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평형이 커짐에 따라 TV의 크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TV와 시청자의 적정한 거리유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TV 선택이 필요하며 인간공학에서 제시하는 (TV브라운관의 넓이 × 6) 기준⁹⁾에 따르면 10평형의 거실에는 16인치 이하의 TV를, 20평형과 30평형의 거실에는 25인치 이하의 TV를 40평형과 50평형에는 29인치 이하의 TV선택이 바람직하나 전반적으로 큰 TV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家口)가 1대 이상의 TV를 보유(119.4%)⁵⁾ 또는 95%⁸⁾, 82.5%¹⁰⁾가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평형에 관계없이 90%이상 거실에 TV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TV는 이미 우리의 생활필수품으로 완전히 자리잡았으며 그 중 거실에서의 TV배치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TV 선택유형

구분 평형	N(%)					
	없음	35 인치	29 인치	25 인치	20 인치	16 인치
10평형	4 (7.8)	2 (3.9)	2 (3.9)	16 (31.4)	16 (31.4)	11 (21.6)
20평형	1 (2.0)	4 (7.8)	10 (19.6)	23 (45.1)	12 (23.5)	1 (2.0)
30평형	4 (7.8)	12 (23.5)	17 (33.3)	13 (25.5)	4 (7.8)	1 (2.0)
40평형	1 (2.0)	25 (49.0)	21 (41.2)	2 (3.9)	1 (2.0)	1 (2.0)
50평형	1 (2.0)	41 (90.4)	2 (3.9)	2 (3.9)	1 (2.0)	1 (2.0)

※ ■ 1위

6) 오디오 선택을

각 평형별 오디오 선택율을 살펴본 결과〈표 10〉, 10평형의 경우에는 33.3%, 20평형의 경우에는 51.0%, 30평형의 경우에는 51.0%, 40평형의 경우에는 64.7%, 50평형의 경우에는 72.5%가 오디오를 선택하였다. 오디오에 있어서는 평수가 커질수록 선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오디오 선택율

구분 변인	N(%)	
	선택함	선택하지 않음
10 평형	17(33.3)	34(66.7)
20 평형	26(51.0)	25(49.0)
30 평형	26(51.0)	25(49.0)
40 평형	33(64.7)	18(35.3)
50 평형	37(72.5)	14(27.5)

한편, 전용면적 10평형과 20평형의 오디오 보유율이 평균 65%라는 결과⁸⁾와 비교해 볼 때 본 실험결과에서는 10평형, 20평형의 오디오 선택율이 43%로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오디오의 경우는 TV와 달리 거실이외의 장소(예를 들어, 오디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가족원의 개인생활공간)에 배치시 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7) 가구종류의 선택유형

각 평형별로 인체계, 건축계, 준인체계, 에너지계가구를 선택한 유형은 모두 11가지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가구종류별 선택유형

구분 평형	N(%)										
	없음	건축계	인체계 + 건축계	인체계 + 에너지계	건축계 + 에너지계	건축계 + 준인체계	에너지계 + 준인체계	인체계 + 건축계 + 에너지계	인체계 + 건축계 + 준인체계	건축계 + 에너지계 + 준인체계	인체계 + 건축계 + 에너지계 + 준인체계
10평형	1 (2.0)	1 (2.0)	1 (2.0)		14 (27.5)	1 (2.0)	1 (2.0)	13 (25.5)	1 (2.0)	7 (13.7)	11 (21.6)
20평형				2 (3.9)	2 (3.9)			12 (23.5)		2 (3.9)	33 (64.7)
30평형							7 (13.7)	3 (5.9)	1 (2.0)		40 (78.4)
40평형							6 (11.8)				45 (88.2)
50평형							1 (2.0)	1 (2.0)			48 (96.1)

※ 1위

※ 빈칸은 사례수가 없는 경우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평형의 경우에는 건축계와 에너지계만 선택한 경우가 27.5%로 가장 많았으며, 인체계+건축계+에너지계를 선택한 경우가 25.5%로 많았으며, 인체계+건축계+에너지계+준인체계를 모두 선택한 경우는 21.6%로 나타났다.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에 있어서는 인체계+건축계+에너지계+준인체계를 선택한 경우가 64.7%, 78.4%, 88.2%, 96.1%로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평형별 가구의 배치유형

1) 소파의 배치유형

각 평형별로 소파의 배치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소파의 배치유형은 크게 NO소파형, 일자형, L자형, 대면형, C자형, 분산형의 6가지 유형으로, 10평형에서는 NO소파형이 51.0%, 일자형이 49.0%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평형에서는 일자형이 68.6%, 30평형에서는

일자형이 62.7%로 가장 많으며, 40평형에서는 일자형 45.1%, L자형 37.3%였다. 50평형에서는 L자형이 39.2%로 가장 많으며, 일자형이 31.4%, C자형이 21.6%로 많았다. 즉 평형이 증가함에 따라 배치유형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간의 한 쪽을 차지하는 배치형보다 공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치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용면적 10, 20, 30평형에 대한 소파 배치 실태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⁶⁾에서는 10평형에서 65.2%가 L자형, 20평형에서는 75%가, 30평형에서는 62%가 L자 배치를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평수가 작은 경우 면적을 덜 차지하는 일자형 배치가 많고, 평수가 클수록 C자형, L자형, 분산형이 증가한다는 이명옥의 결과²⁾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일자배치를 선호하고 비교적 평수가 큰 50평형에서만 L자배치를 선호하고 있어 평형에 따른 소파 배치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12> 소파 배치유형

구분 평형	소파배치 유형 N(%)					
	No 소파형	일자형	ㄴ자형	대면형	ㄷ자형	분산형
10 평형	26 (51.0)	25 (49.0)	0 (0.0)	0 (0.0)	0 (0.0)	0 (0.0)
20 평형	4 (7.8)	35 (68.6)	10 (19.6)	2 (3.9)	0 (0.0)	0 (0.0)
30 평형	1 (2.0)	32 (62.7)	14 (27.5)	3 (5.9)	1 (2.0)	0 (0.0)
40 평형	0 (0.0)	23 (45.1)	19 (37.3)	4 (7.8)	5 (9.8)	0 (0.0)
50 평형	0 (0.0)	16 (31.4)	20 (39.2)	3 (5.9)	11 (21.6)	1 (2.0)

※  1위

2) 소파의 위치

각 평형별로 소파를 선택한 경우 거실공간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소파의 위치

구분 평형	소파의 실중 위치 N(%)		
	중앙	벽면에 접함	중앙과 벽사이
10 평형	0(0.0)	25(51.0)	0(0.0)
20 평형	3(5.9)	40(78.4)	4(7.8)
30 평형	6(11.8)	43(84.3)	1(2.0)
40 평형	6(11.8)	42(82.4)	3(5.9)
50 평형	11(21.6)	37(72.5)	3(5.9)

※  1위

10평형에서는 소파가 있는 경우에는 100% 벽면에 접하는 배치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20평형에 있어서는 78.4%, 30평형에서는 84.3%, 40평형에서는 82.4%, 50평형에서는 72.5%가 벽면에 접하고 있으며, 평형이 커짐에 따라 중앙에 위치하거나, 중앙과 벽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형에 관계없이 벽면에 접하는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를 벽쪽으로 배치하여 거실의 중앙부를 비워 좌식 생활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선행연구 결과⁵⁾를 뒷받침하며 큰 평형일수록 중앙형이 많고 벽면형은 평수가 작을수록 많다는 연구결과²⁾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소파배치와 창문과의 관계

각 평형별로 소파배치와 창문과의 관계를 L형 소파(3인용)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표 14>, 각 평형에 관계없이 창문과 소파배치가 직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형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은 약간 감소한다. 이는 소파배치를 창문과 직각형을 선호한다는 선행결과⁶⁾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4> 소파배치와 창문과의 관계

구분 평형	소파배치와 창문과의 관계 N(%)			
	창문과 직각	창문과 대면	창문과 배면	혼합
10 평형	25(51.0)	0(0.0)	0(0.0)	0(0.0)
20 평형	46(90.2)	0(0.0)	1(2.0)	0(0.0)
30 평형	46(90.2)	3(5.9)	1(2.0)	0(0.0)
40 평형	45(88.2)	1(2.0)	2(3.9)	3(5.9)
50 평형	45(88.2)	2(3.9)	2(3.9)	2(3.9)

※  1위

4) 장식장 배치유형

각 평형별 장식장의 배치유형을 살펴 본 결과,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각 평형별로 살펴보면 평형에 관계없이 일자형이 가장 많았으며, 평형이 증가할수록 병렬형과 ㄴ자형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5>. 이는 조원덕의 연구결과(일자형:88.3%, 병렬형:27.5%)¹¹⁾나 이명옥의 연구결과(일자형:

53.6%, 병렬형: 17.4%)²⁾와 그 경향성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표 15〉 장식장 배치유형

구분 평형	장식장 배치 유형					
	없음	일자형	ㄱ자형	ㄷ자형	병렬형	분산형
10 평형	3 (5.9)	42 (82.4)	1 (2.0)	0 (0.0)	3 (5.9)	2 (3.9)
20 평형	2 (3.9)	42 (82.4)	2 (3.9)	0 (0.0)	5 (9.8)	0 (0.0)
30 평형	0 (0.0)	43 (84.3)	1 (2.0)	0 (0.0)	7 (13.7)	0 (0.0)
40 평형	0 (0.0)	35 (68.6)	2 (3.9)	0 (0.0)	14 (27.5)	0 (0.0)
50 평형	1 (2.0)	30 (58.8)	4 (7.8)	0 (0.0)	16 (31.4)	0 (0.0)

N(%)

※  1위

4. 가구의 평균 점유율

각 평형별 가구의 평균 점유율에 대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가구의 평균 점유율

구분 평형	(%)		
	바닥점유율	벽면점유율	공간점유율
10평형	19.915	16.311	7.433
20평형	23.912	20.544	9.025
30평형	28.378	25.395	11.179
40평형	29.492	26.782	11.685
50평형	31.074	29.185	12.52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평균 점유율은 평형이 커질수록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완만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바닥 점유율은 가구의 폭과 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가구의 면적이 공간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의 바닥 점유율에 따라 인간이 지각하는 공간의 넓이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다른 공간내에서 일정

가구가 차지하는 바닥 점유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 16〉에서 보면 강무진¹²⁾의 연구결과에 비해 모든 평형에서 바닥 점유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명옥의 실태조사 결과(10평형:27.0%, 20평형:30.3%, 30평형:31.8%)²⁾보다도 낮게 나타나, 실태보다 가구의 바닥 점유율이 작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원덕의 연구¹¹⁾는 가구점유면적과 사이공간을 합한 면적을 실내면적으로 나눈 것을 평균가구의 면적으로 하여 점유율을 산출하는 기준을 본 연구와 달리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고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전술한 가구의 선택 유형에서 오디오 이외에는 대부분 실태조사 결과보다 가구를 많이 선택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에서는 가구의 종류를 많이 선택하면서 각 가구의 크기는 작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다음 벽면 점유율을 살펴보는데 이는 가구의 높이와 실내공간과의 관련성에 있어 인체, 동작, 인간의 생리적인 면과의 관계보다는 시각적인 공간느낌 즉 인간의 심리적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닥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평형이 증가할수록 벽면 점유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이명옥의 결과(10평형: 23.4%, 20평형:29.1%, 30평형:32.4%, 평균:28.1%)²⁾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실태를 조사한 田中¹³⁾의 16%-26%와는 40평형이하에서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 점유율은 가구의 공간 점유율은 가구의 폭과 깊이, 그리고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가구의 체적이 공간 전체의 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간 점유율에 따라 공간과 가구의 사용자인 인간이 느끼는 공간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공간과 가구는 입체이므로 3차원적인 시선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가구의 점유율 중에서는 공간 점유율로 공간과 가구의 입체감을 평가할 수 있다. 바닥 점유율과 벽면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공간 점유율 합계의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평형이 증가할수록 공간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살펴 보면 이명옥의 결과(10평형 11.8%, 20평형:15.3%, 30평형:15.4%, 평균 14.0%)²⁾보다도 대체로 낮은 공간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田中¹³⁾의 7-13%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거실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요구행위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가구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각 평형별로 크기가 다른 거실공간에서의 가구의 선택유형과 선호 배치유형 및 가구의 점유율을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각 평형별로 가구 선택형태와 가구배치 유형 및 가구의 점유율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평형별 가구 선택유형에 있어 소파의 선택유형은 평형이 커질수록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공간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간제약을 덜 받게 되어 소파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테이블 사용 역시 평형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용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소파와 테이블을 보유하지 않는 좌식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희망하며, 평형이 커질수록 소파+테이블+사이드 테이블을 함께 갖추는 전형적인 응접세트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V선택유형을 살펴본 결과, 평형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전제품 대형화의 경향을 알 수 있으며 평형에 관계없이 대부분 TV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거실을 전 가족의 생활의 중심 장소로 인식하는데

TV가 중요한 영향 요소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오디오의 경우에는 TV와 달리 거실에 배치시킨 비율이 선행 실태조사 연구들에 비해 낮아 거실 이외의 장소에 배치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장소는 개인생활공간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공적 공간인 거실이 제기능을 다하고, 선호가구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이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구선택과 배치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각 평형별 가구의 배치유형에 있어서는 소파의 배치유형과 위치, 창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 보았는데 10평형에 있어서는 NO소파형이 가장 많고, 일자형 + 벽면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평형에서도 일자형 + 벽면형 + 창문과 직각형이 가장 많아 소파로 인해 야기되는 공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그 공간을 좌식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므로써 좌식과 의자식의 절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30평형이상에 있어 배치유형은 일자형, L자형, C자형과 배치위치는 벽면형, 중앙형, 중앙과 벽 사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형이 커질수록 좌식에서 의자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 소파의 배치유형과 배치위치가 다양하여 공간전체를 이용하는 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장식장의 배치유형은 평형에 관계없이 일자형을 선호하며, 평형이 커질수록 병렬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바닥·벽·공간 점유율 모두 평형이 커질수록 점유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증가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가용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가구의 사용과 배치의 증가는 둔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주로 한 선행연구와의 고찰을 해 본 결과 유사점

과 차이점을 각각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모형실험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거실 이외의 타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거실공간과 거실가구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데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공간과 가구사용자인 거주자의 욕구가 모형실험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연세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연구실, 건축관계 문헌자료 목록집, 공간예술사, 1993.
- 2) 이명옥,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1991.
- 3) 이종협, 주거환경 구성요소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1983.
- 4) 안옥희, 실내디자인, 미진사, 1993.
- 5)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7.
- 6) 김오성, 아파트의 가구 배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7.
- 7) 선병룡, 주호평면유형이 거실의 가구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1987.
- 8) 정연미, 아파트 거실공간에 대한 조사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1987.
- 9) 전경배 외, 주택계획론, 산업도서출판사, 1989.
- 10) 유유상, 소규모 아파트의 거실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7.
- 11) 조원덕, 가구의 이용에 따른 주행위 영역의 구성과 공간효과, 충남대 대학원, 1990.
- 12) 강무진, 주거공간의 가구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대학원, 1986.
- 13) 出中宏子, 住宅居間における裝備的要因としての家具が居住性評價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研究, 奈良女子大學, 1990.
- 14) 최창길, 건축의 모형, 기문당, 서울, 1884.